

절대강자 없는 대선…野 잠룡들 ‘연대의 계절’

‘문재인-안희정’, ‘안철수-손학규’, ‘박원순-이재명’

여야 모두 분열…유동성 커져 ‘합종연횡’ 화두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잠룡들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 후발 주자들이 연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노’(친 노무현)를 뿌리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같은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간의 연대 기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박 시장과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회

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연대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날 박 시장은 이 시장에게 “언젠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화가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의 연대가 현실화한다면 ‘비문’(비문재인) 연대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며 민주당 대선 경선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밖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 전 대표를 상대로 정계은퇴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당이 지도부까지 발 벗고 나서며 손 전 대표를 엄호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과 만나 “안 지사의 발언은 정치금도에 어긋난다”면서 “안 지사는 과거 엄연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불법 대선자금까지 받고 복역까지 하지 않았느냐. 후배가 정치를 똑바로 세워야지 그렇게 막말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오는 22일 정치적 결사체인 국민주권시대 출범을 통해 국민의당과 통합 및 연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는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경우 민주당 밖에서도 비문 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개헌론을 토대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일부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제3지대론’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

을 내놓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지사는 겉으로는 우호적인 흐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산이 엇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안 전 지사의 발언이 대세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정치권의 합종연횡에 부정적 소신을 밝힌 것은 문 전 대표를 옹호하기보다는 진보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잠룡들 간의 합종연횡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여권도 야권도 모두 분열되면서 정국의 유동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합종연횡은 대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퇴임 반기문 대선행보 본격화

12일 귀국…공항 메시지 주목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혀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대선출마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반 전 총장은 4일 뉴욕의 유엔 사무총장 공관을 떠나 애플래치아 산장으로 갔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휴식하고, 국내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2일 오전 3시(현지시각 11일 오후 1시) 뉴욕을 출발,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도착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반 전 총장이 공항에서 내용을 첫 메시지다. 반 전 총장 주변에선 귀국 직후 대국민 메시지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합과 대타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통의 가치를 담으면서 선거 쟁점이 될 개헌과 경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필요성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영 인파를 통제할 수 없지만, 과도한 규모는 반 전 총장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반 전 총장은 일단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과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 전 총장의 귀국에 맞춰 국내에서 대선행보 준비해 온 실무진은 마포에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사당동 자택에 머무르면서 당분간 자신의 사무실, 광화문 주변에 있는 측근 인사들의 사무실 등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무실은 근거지로는 활용하고,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대선행보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레이스에는 현실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정치권 인사들도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도에선 반 전 총장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 인식되지 만, 확장성을 위해 오히려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옛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같은 인위적인 지역간 연대 구도를 염두에 두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반 전 총장이 출신 지역인 ‘충청권 후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새누리 새신 탄력불나

친박 중진 정갑윤 탈당

홍문종 거취 지도부 위임

친박(친박근혜) 중진 정갑윤 의원이 4일 탈당하고 홍문종 의원이 거취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면서 새누리당 인적쇄신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선인 정갑윤 의원 관계자는 이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하실 듯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주민들과 새해 상견례 후 서울로 올라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인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홍 의원이 인 위원장의 판단에 조건 없이 따를 것이며 당 쇄신을 위한 밑일이 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친박진영이 중심이 된 현 새누리당 지도부 전원으로 인 위원장에게 거취를 위임한 상태다. 지난 2일 이정은 전 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친박 의원들의 동참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 위원장은 무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 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정통성 있는 진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려내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다시 모인 남·원·정 개혁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회의에서 신당 합류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개헌저지 문건 ‘일파만파’

민주 진상조사위 구성…정치권 “文 사당의 민낯”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문건 작성자를 보지 해임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리는가 하면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4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개혁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보고서를 소수의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만 받아봤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특권 세력 패권 정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당임을 자임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제 2의 최순실의 그림자가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민주당 친문세력들이 마치 문 전 대표가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는 전제 하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반

증”이라며 “대선의 선두주자로서 국가적 대개혁보다는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자신에게 ‘이번 문건을 계기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주요 당직자, 시도당위원장 중 친문 아닌 사람만 명도 없는 민주당의 민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가려진 문재인 사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구의 사당(私黨)이나?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정당이나?’ 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희정-손학규 설전에 2野 충돌

“孫, 동지 수시로 바뀌어” vs “계파 수장 文 은퇴하라”

대선 주도권 다툼 신경전…손학규계 탈당설 두고도 마찰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설전 차원을 넘어 감정 대결 양상을 보이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3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날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민주당 주류인 ‘친노’(친 노무현) 및 ‘친문’(친 문재인) 진영을 맹폭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안 지사를 향해 “야권분열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은퇴부터 주장하는 게 맞다”며 “안 지사야말로 불법 대선자금도 받고 복역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전 의원도 성명을 내고 “손 전 대표는 ‘혁신과 통합’을 주도하며 폐쇄 위기에 몰린 친노 세력을 민주당에 받아들이운 일”이라며 “안 지사는 발언을 절제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제3지대 정계개편’을 고리로 손 전 대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대선 판을 흔들며 정권 창출을 모

색하고 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손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손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합집산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구국의 결단처럼 됐다”고 “정당은 서로 동지로서 나라를 이끌어보자고 만드는 조직인데, 손 전 대표는 동지가 어떻게 수시로 바뀌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합집산은 흔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돕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손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양측은 민주당내 손학규계 의원들의 탈당설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해봤으나 보따리를 싸려는 정우는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저는 보따리 싸겠다는 의원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